

• 서울시 젠더폭력 현황 및 대응 •

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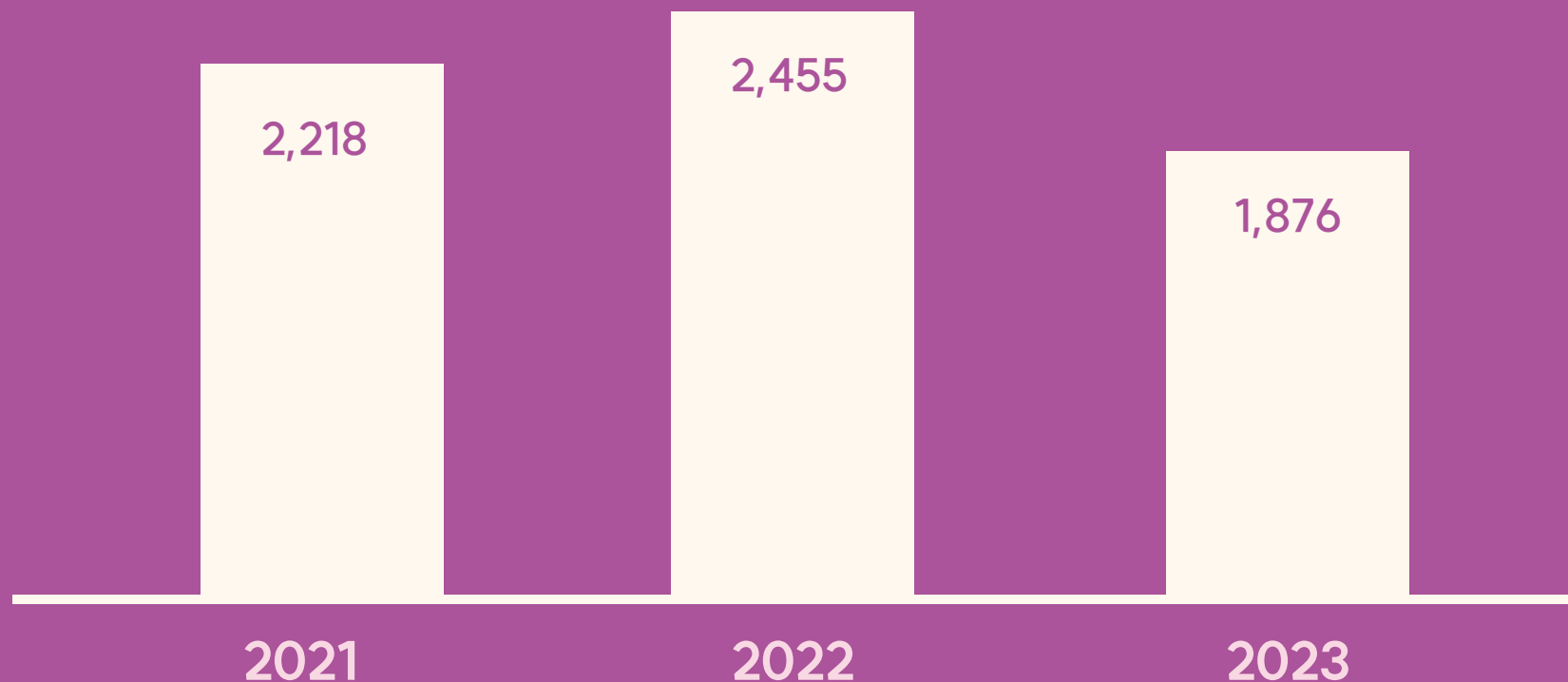


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

서울시는 1인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취약가구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매년 약 2천개 내외의 안심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〈서울시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수〉

(단위: 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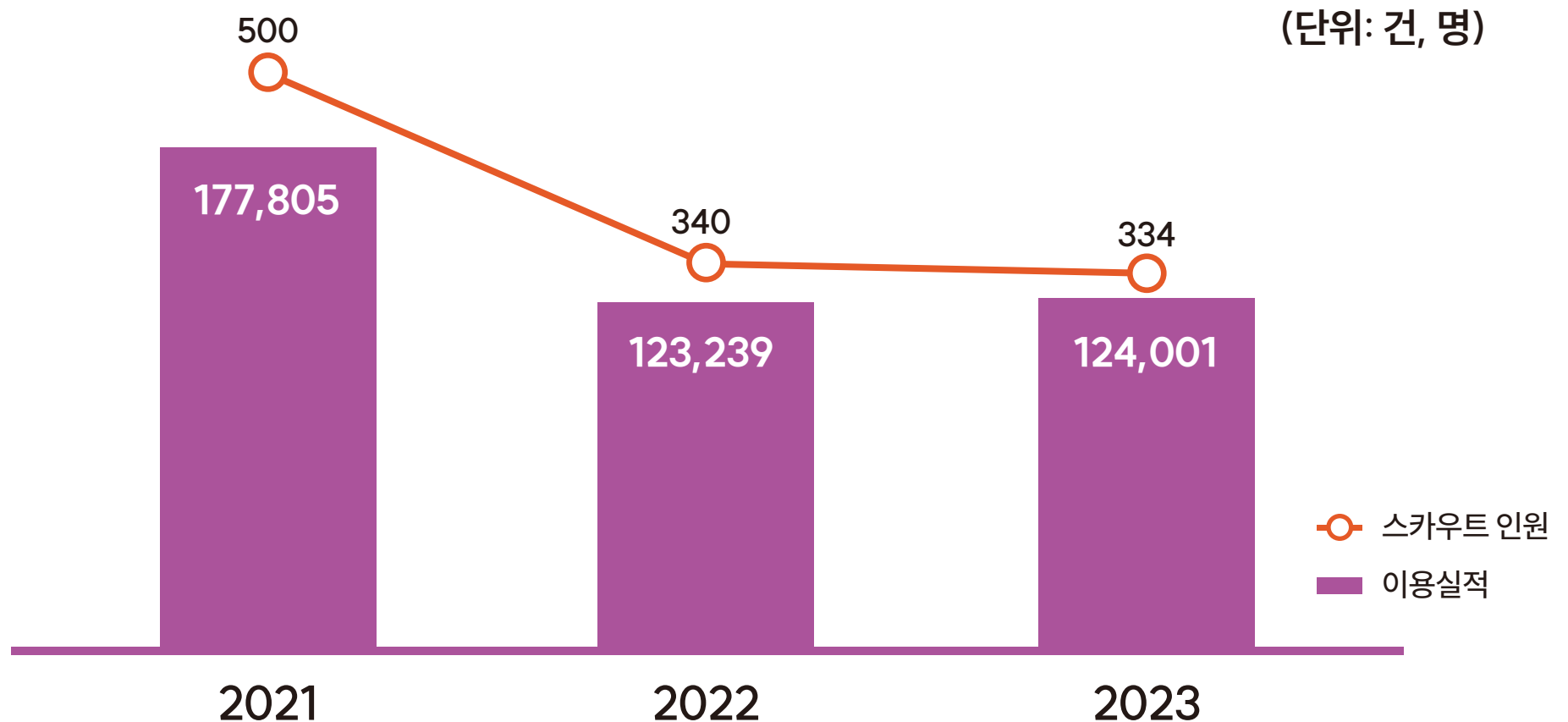


* 각 자치구별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
〈서울시 1인가구 포털〉 혹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

안심귀가 스카우트

서울시는 여성, 청소년 등의 안전 취약계층과 안전한 귀가를 원하는 모든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3년 기준,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334명의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이 활동했으며, 124,001건의 안심귀가를 지원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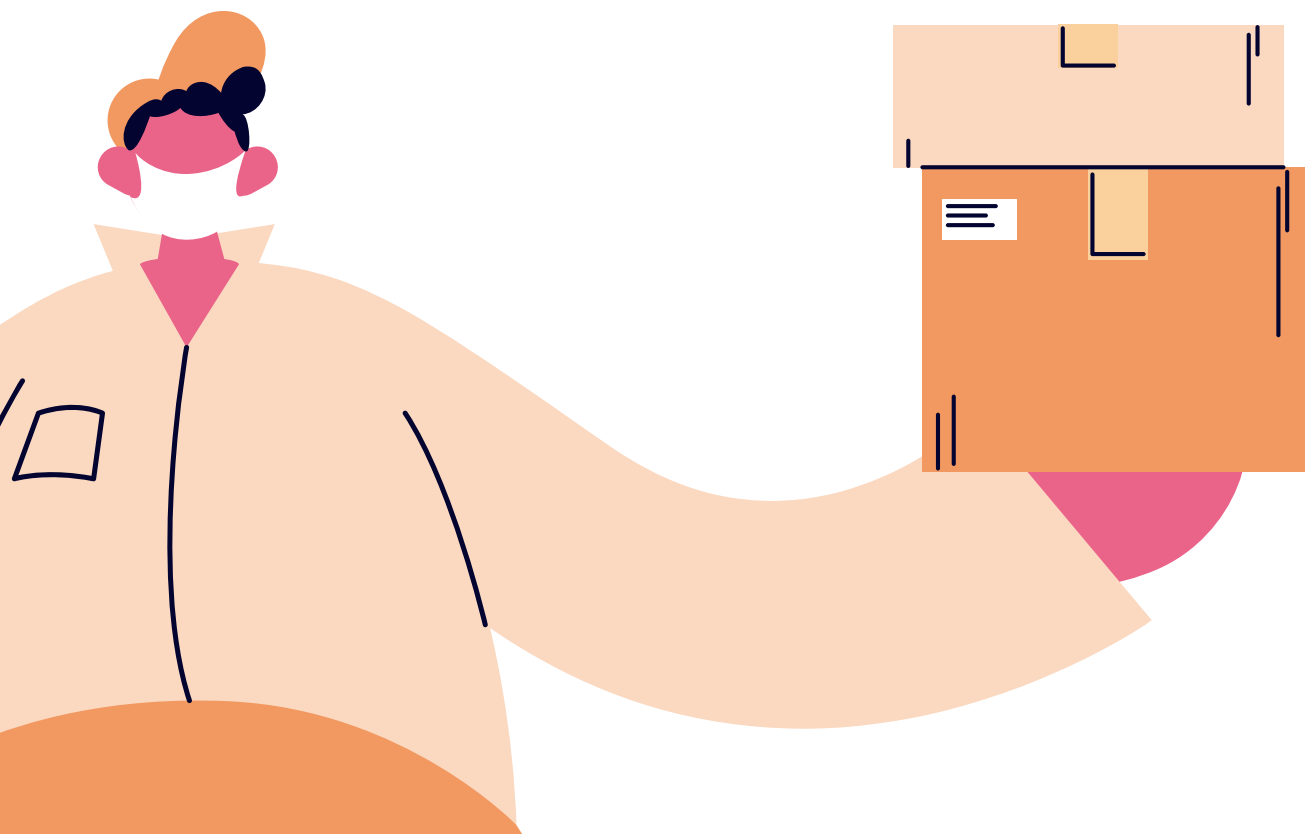
〈서울시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현황〉



*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서울 안심이 앱을 통한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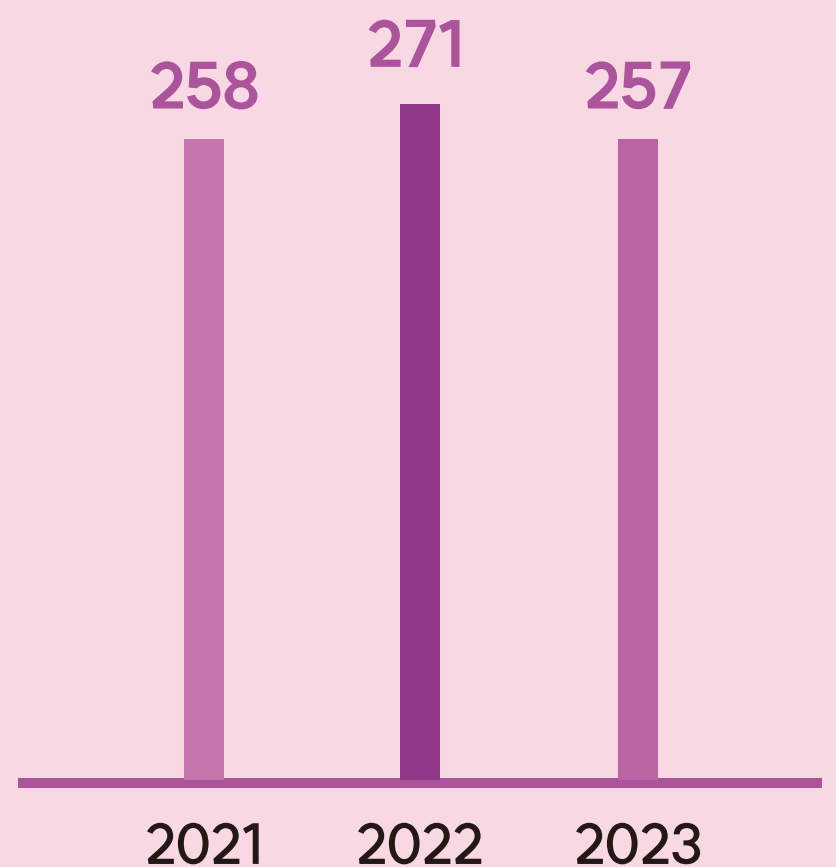
안심택배함

서울시는 1인가구 밀집지역, 다가구·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매년 250개 이상의 안심택배함을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서울시 안심택배함 설치 수

(단위: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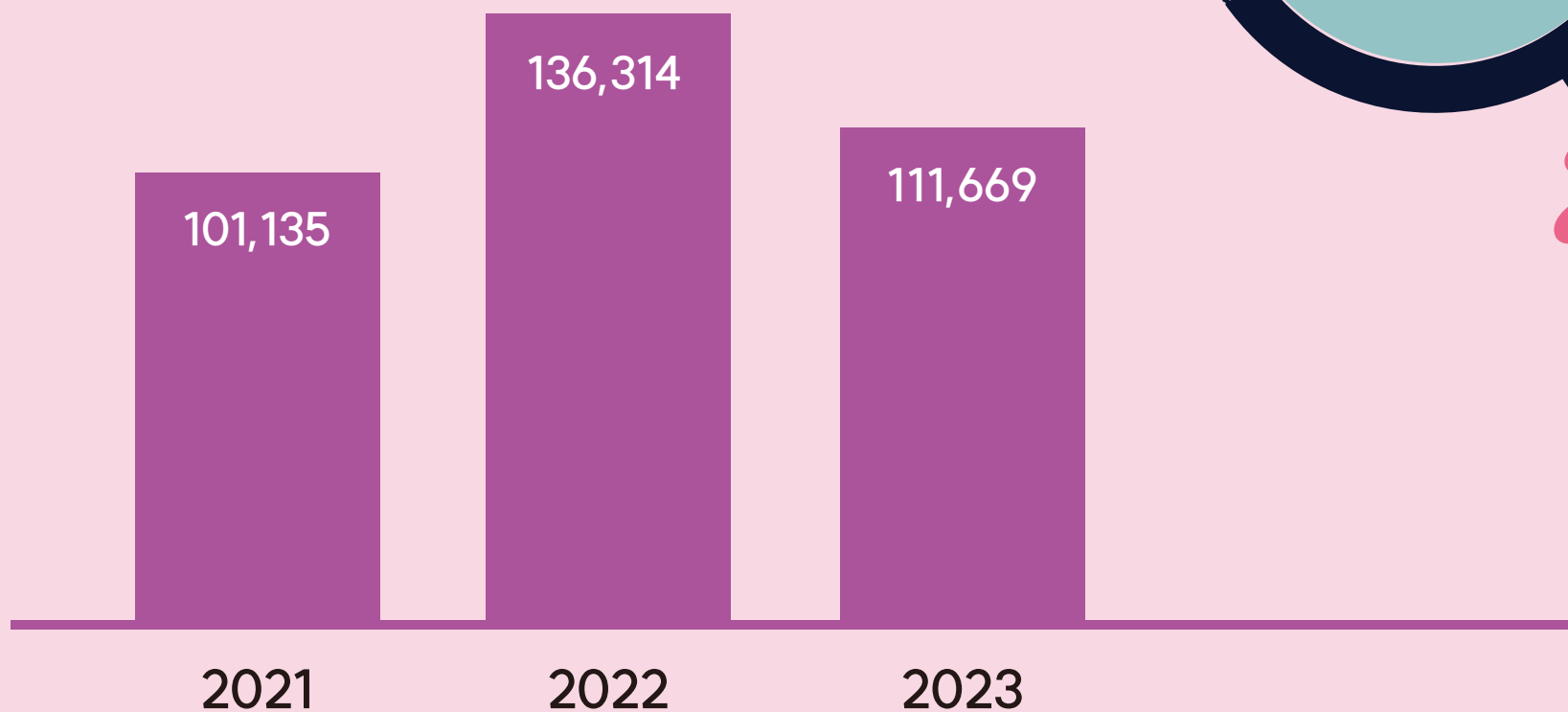


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

서울시는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성매매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'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매년 1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성매매 알선·광고 등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성매매 방지활동을 통해 불법·유해정보가 성착취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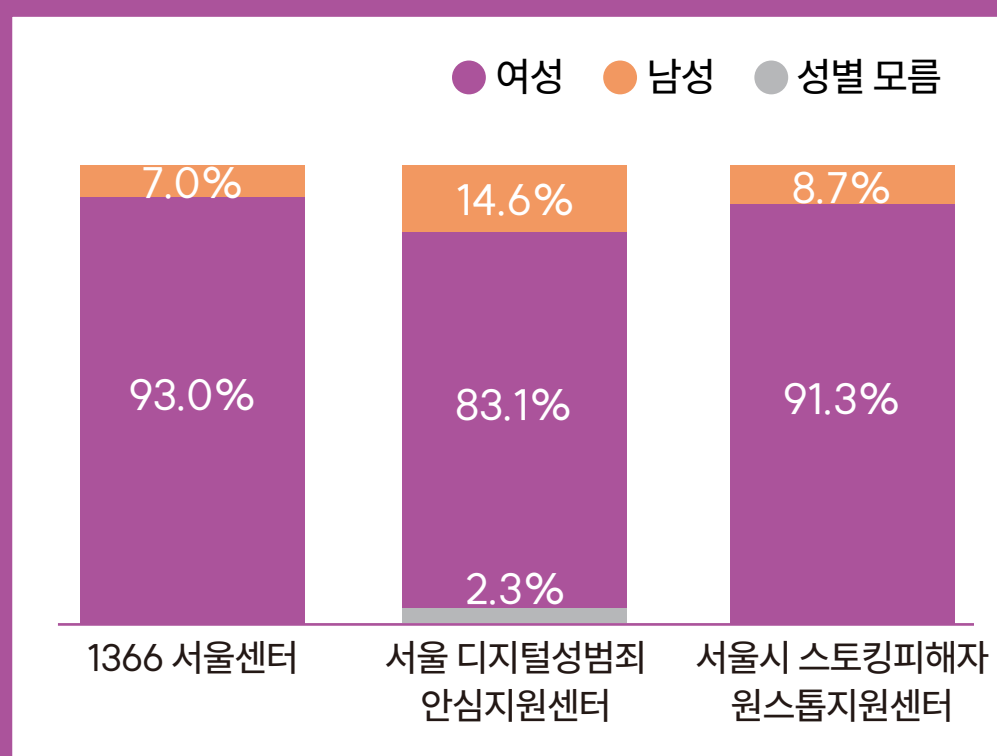
온라인 성매매 알선·광고 신고 현황

(단위: 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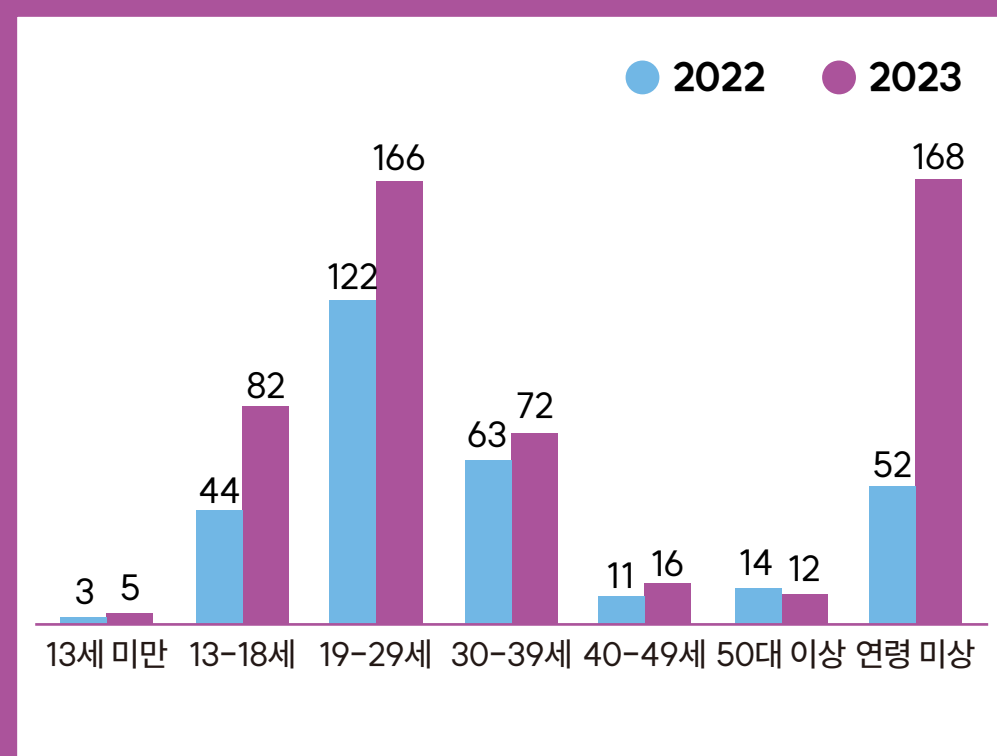


젠더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현황

젠더폭력 피해 지원기관 모두 여성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.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경우 20대 피해자 비율이 높으며, 청소년 피해자 지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


성별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(단위: %)



연령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현황 (단위: 명)

젠더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기관

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

- ✓ 피해자의 첫 상담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피해지원관이 함께하며 원스톱 통합 지원(상담, 수사, 법률, 삭제, 심리상담, 의료 지원)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

- ✓ 스토킹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확보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거주지 이전 지원, 심리 상담, 법률 지원, 임시보호시설 입소, 의료 지원, 온라인 삭제 지원 등 원스톱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

- ✓ 젠더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에게 긴급전화상담,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,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긴급피난처 제공, 보호시설 안내 및 연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해바라기센터

- ✓ 365일 24시간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, 교제폭력,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, 수사, 법률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